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 년 10 월 3 일

쿠오모 주지사, 주 박람회, 카운티 박람회, 파머스 마켓에서 농장증류소의 주류 판매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하다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가 라이선스가 있는 농장증류소에게 뉴욕주 박람회, 유명 카운티 박람회, 비영리 파머스 마켓에서 자신들이 주조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 법안은 현재 라이선스가 있는 와이너리, 농장 와이너리 및 농장 내 맥주공장에게만 허용된 마케팅 기회를 지역 농장들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증류소에게도 똑같이 제공함으로써 함께 상생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농장증류소와 농업 부문은 뉴욕주 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농장증류소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농장 바깥에서도 시음 및 판매를 허용하여 이들 증류소가 업계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여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나갈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뉴욕주 경제와 지역 경제를 부양시키고 뉴요커와 방문객들에게 엠파이어스테이트 제품을 즐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농장증류소는 현재 뉴욕주 라벨이 붙은 주류에 뉴욕주 농산물을 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곳에서는 자체 증류소 구역 내에서만 농장 제품의 시음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장 내 맥주공장, 농장 와이너리, 라이선스가 있는 와이너리는 이러한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뉴욕주 전역에서 열리는 박람회와 마켓에서 뉴욕주 라벨이 붙은 제품을 시음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이 발효되면 농장증류소는 뉴욕주 박람회, 유명 카운티 박람회, 지역의 비영리 파머스 마켓에서 주류 시음회를 열고 뉴욕주 라벨이 붙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음 및 판매가 책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뉴욕주 주류국(State Liquor Authority permit)에서 발급한 주류허가증이 있어야 하고 현장에 증류소 대표를 배치시켜야 합니다. 농장증류소들이 다른 와이너리와 맥주공장처럼 잠재 고객과 시장에 똑같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 농장들이 뉴욕에서 규모를 키우고 발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180 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John Bonacic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Cuomo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해주셔서 기쁩니다. 뉴욕주 소규모 증류업계의 경쟁적인 성장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의 유명

제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Cuomo 주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지만 지역 요구르트 제조와 지역 맥주 및 주류 등과 같은 틈새 업계를 집중조명함으로써 이들 업계가 발전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뉴욕의 경제가 다양하고 발전하는 분야가 있음을 더욱 잘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Kevin Cahill 하원의원은 말했습니다, "뉴욕의 맥주 양조업체와 증류주 업체 및 와인업체는 직접 재배해서 만든 뛰어난 제품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이렇게 발전하는 업계에서 불고 있는 시너지 창출의 가치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과 같은 소규모 업체들이 발전할 것이고 바로 여기 우리 뒷뜰에서 만든 최고 품질의 술들이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